협상 테이블 위의 '전두환'…1672억의 해법은…

국회 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7건 일괄 심의 착수

여야, 심의 첫날부터 격론…진통…
시효 연장 공감…가족 추징 등엔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이 계속됐다.

상정된 7개 법안은 민주당 유기홍·최재성 의원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제남 의원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각각 발의된 7개 법안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병합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당과 야당, 법무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개별법안들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항을) 1~3번 법안에서 (병합해) 심사하자는 것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1~3번 법안은 민주당 유기홍·최재성 의원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형법상 몰수 및 추징시효인 3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이 확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미납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은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오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한 차례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이제 막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고 각각 말했다.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참석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실제로 오후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측이 일부 법안들이 소급금지 원칙과 이중처벌·연좌제 금지, 과잉금지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야는 추징 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우 가족 대상 추징이나 노역형 부과에 대해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거나 연좌제 적용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위헌 시비에 대해선 일부 문구 보완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역형 부과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의견이 제시돼 실제 입법화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르느와르 우산엔 행복의 빗줄기가 '뚝 뚝'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 장마

"지금 우리는 雨中에 있다/모든 깃발을 내리고 서 있다/오지도 가지도 못하는/적신호 앞에서/바다와 같이 밀려올/그 억센 파도를 생각 한다/인생은 그 때 또 있는 것/지금 우리는 雨中에 있다"〈박봉우 '지금은 비오는 중'〉

칠월이 오기 전에는 여름이라 여기고 싶지 않지만 올 유월은 시작부터 폭염이다. 50년 새 보름이나 빨라졌다는 여름 더위 탓일까. 그 어느 때보다 장맛비가 반갑다. 비가 내리니 과열된 머리도 가슴도 벌써 시원해진다. 창 밖 거리의 우산 행렬이 비 내린 날의 서정을 더해주는 한 폭의 그림 같다.

빛의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잡고자 야외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인상주의자들은 '외광파'답게 햇살 아래 양산을 멋스럽게 든 여인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인상주의의 주요 인물이었던 르느와르(1841~1919) 역시 양산 든 여인을 비롯, 비 내리는 날의 파리 풍경도 여인들의 패션과 함께 섬세하게 그림으로 묘사하곤 했다. 르느와르는 파리의 풍속을 그렸고 여인들은 다시, 르느와르의 그림에서와 같은 차림을 했다고 한다.

르느와르 작 '우산들'

르느와르가 '외광'에서 벗어나 빗속의 '우산들'을 그린 것은 의외다. 빛의 찰나적인 느낌을 묘사하면서 표현되는 윤곽선의 흐릿함 대신 새로운 기법을 찾기 위해 선의 필치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굴렁쇠를 든 아이, 바구니를 든 젊은 여자와 그녀를 보고 있는 신사, 행인들과 우산들의 배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빗물과 더불어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듯하다.

열 네 살의 나이에 도자기 위의 작은 꽃그림으로 그림을 시작, 만년에 류머티즘으로 구부러지고 마비된 손에 붓을 비끄러매고 그림을 그렸던 르느와르.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 않은 채 젊음과 행복을 가득 채운 그의 작품 속 우산들 위로 경쾌한 빗줄기가 떨어지는 듯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5·18 왜곡 종편 출연자 10명에 민사소송

폄훼 게시글 1000여건 분석·검토…2차 고소·고발키로

왜곡대책위 3차 시국회의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9일 광주시청에서 제3차 시국회의를 개최해 5·18을 왜곡한 혐의로 고소한 종편 채널 출연자 등 10명에 대해 추가로 민사소송을 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접수된 5·18 폄훼 게시글 1000여건을 분석·검토해 2차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2차 고소·고발에는 1차 고소·고발때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와 피해 유가족들이 참여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위는 5·18을 왜곡한 출판물에 대해서도 고소와 함께 배포(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 발생 배경과 역사적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10분 분량의 영상홍보물을 제작해 17개 시·도와 244개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 각급 기관·단체·학교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영상 홍보물에는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3000여명을 저격수로 배치해 시민에게 조준 사격을 한 사실과 5·18 진상규명 계승 투쟁 과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청문회 당시 진술 등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5·18 역사왜곡 바로잡기 및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1000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5·18 북한군 600명 개입설을 보도한 채널 A와 TV 조선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종편의 고의성 여부와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종편에 출연해 5·18 역사성을 왜곡한 사람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추후 법률적 진행상황 등을 봐가며 종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전두환 집 쳐들어간다

민주당 오늘 연희동 항의 방문

1인시위·서명운동도 벌이기로

민주당은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위'는 전날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항의방문에는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 등 위원들을 비롯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위는 또한 조만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사업체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서명운동 등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 및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참여하는 '국민협업 세무조사 네트워크' 출범식을 이번주 안에 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日만평

- 김종두

오뉴월 '서릿발 政局' 되나?!

한림제약이 전하는 건강뉴스 '코건강' 편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씻코

콧속을 클린하자!

엔클 비액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빠른효과! 만성부비강염, 알레르기, 비충혈제의 과용으로 인한 점막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자극! 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촉촉한 점막 유지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삽입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온가족이 상비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약청 허가의 일반의약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비점막 건조 증상의 완화
용법·용량 / 성인: 증상에 따라 필요 시 양쪽 비강(콧속)에 2회 분무하십시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하십시오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뚫코

막힌 코를 트자!

트인 비액

콧속에 뿌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빠른효과! 코감기로 인한 점막 팽창과 충혈의 불편을 혈관 수축으로 즉각적 효과를 발휘
• 증상해소!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을 해소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삽입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환부에만 작용하는 식약청 허가의 일반의약품

우리아이 코 건강에 | 학생의 코 건강에 | 직장인 코 건강에

효능·효과 / 감기, 고초열, 부비강염, 상기도 알레르기에 의한 비충혈의 일시적 완화
용법·용량 / 성인 및 12세 이상 어린이: 증상에 따라 1일 4시간마다, 양쪽 비강(콧속)에 2~3회씩 분무하십시오

제품문의 02)3489-6186 | 광고심의필 : 1202-0705 |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